

다시 그린 실학자 풍경

글·그림 이동원



다시 그린 실학자 풍경

글·그림
이동원



실학박물관

시대배경은 1768년경 박지원이 32세에 백탑근처로 이사해 이덕무, 이서구, 서상수, 유득공과 가까이 지내며 박제가와 이서구가 제자로 입문하였을 무렵이다. 달빛아래 멀리 백탑이 보이고, 눈 내린 깊은 밤, 달빛아래 박제가가 친구들이 모여 있는 서상수의 관재를 향해 가는 모습을 담았다. 백탑의 여러 집 가운데 서상수의 관재가 인기가 좋아 이들이 주로 모이는 시회장소가 되었기에 관재를 그림의 중심에 놓았다. 박지원이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이덕무에게 윤회매 만드는 법을 배워 서상수에게 판매하고 19푼을 받았다는 매매문서가 「윤회매십전」에 실려 있다는 것을 보고 착안한 장면이다. 누구의 매화가 진짜 같은지를 겨루는 일화 등을 종합하여 장면을 구성하였고 매화인지 눈인지 명확하지 않는 표현은 그들의 정신과 시련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백탑아집 白塔雅集
45.6×73cm
한지에 수묵담채
2015

열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손가락 끝이 밤틀 만하게 부어올라 피가 터질 지경이라도 책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써 보내고, 풍열로 눈병에 걸려 눈을 뜨지 못해도 실눈을 뜨고 책을 읽던 그의 처절한 집념과, 서얼이라는 신분의 한계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맑은 삶을 살았던 자취, 그리고 스스로를 책만 읽는 명청이(간서치看書癡)라 부르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이덕무의 항심恒心이 아름답고 위대했다. 가슴 속의 한을 부단한 노력으로 승화시킨 그의 송고한 삶의 자세가 밤하늘의 별빛같이 반짝거린다.

그림은 눈 내린 겨울밤, 추위를 견디며 글공부에 여념이 없던 이덕무가 일어 죽었을까봐 새벽에 눈을 쓸어주며 안부를 묻던 이웃 노인에게 글 읽는 소리로 무사함을 알려 주었다던 「이목구심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형암설재 焰菴雪齋

36.7×53.5cm

한지에 수묵담채

2021

연암산방 燕巖山房

94×44cm

한지에 수묵담채

2021

1771년(영조 47), 당시 흥국영이 권력을 잡아 집권하고 있을 때 연암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과거를 포기하고 이덕무, 이서구, 백동수와 함께 개성을 유람하다 황해도 금천군의 개성에서 30리 떨어진 연암협을 답사하며 이곳에서 은거할 것을 기약하여 연암이라 자호하였다. 황폐해서 사는 이가 없었던 이곳에서 이후 일가족을 이끌고 은거 생활을 시작하는데 낭떠러지 절벽이 감싸 안은 초목만 무성한 골짜기 안을 개척하여 자갈밭 몇 이랑에 초가삼간을 마련하여 살게 된다.

그림 속 연암은 화면을 등지고 앉아 있다. 세상과 섞이지 않은 은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입고 있는 의상 또한 초상화의 의복과 일치시켰다. 고개를 돌려 집 앞 윈幡의 제비바위[燕巖]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은 이곳에 애착을 갖고 있는 연암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다산초당 茶山草堂

64×86.8cm

한지에 수묵담채

2021

다산은 1808년 굴동마을 뒤 다산 중턱의 초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원래 유자柚子동산이 있어 굴동橘洞이라 불리던 이곳은 굴림처사 윤단(1744~1821)의 별장이다. 이곳에서 친지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조경을 하고 건물을 더 지었다. 절망과 고난의 시기를 제자들과 함께 이겨내며 희망의 시간들로 채워갔다. 서편 병풍바위 아래 시냇물이 샘솟고 그 곁에 작은 초가 한 채가 호젓하다. 일천 그루의 소나무가 주위를 에워싼 초당 옆 작은 뜻에는 석가산을 세우고, 그 주위에 사계절 연이어 피는 여러 꽃들을 심었다. 다산은 초당의 아름다운 경물들을 하나씩 시로 읊어 다산팔경과 다산화사를 지었는데 매화와 도화, 동백과 모란, 작약과 수구화, 왜석류와 치자, 백일홍과 월계화, 접시꽃과 국화 등과 약초로 자초와 더덕도 있었다. 돌로 샘물을 고이게 하여 미나리를 기르기도 했다. 다산은 초당의 안정된 삶을 토대로 위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이루었다. 그림은 초의선사의 다산초당도를 기본으로 하였고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와 다산화사茶山花史의 글들을 통해 더 구체화하거나 참가, 또는 강조하였다.





1.

산허리를 경계로 가림벽이 시원하니
봄빛은 변함없이 그림으로 그려낸 듯.
어여빠라 온 시내에 새 비가 개인 뒤에
작은 도화 몇 가지 어여쁘게 붉게 핀네.

-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 8-1,
「담장에 하늘대는 복사꽃(拂墻小桃)」

2.

산집의 주렴 위로 물결무늬 짧게 이니
다락 머리 벼들가지 비쳐 보인 것이라네.
바위 비탈 흘날리는 눈발은 아니거니
봄바람 벼들솜 불어 뭇을 희롱하는 걸세.

-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 8-2,
「주렴을 치는 벼들개지(撲簾飛絮)」

3.

황매黃梅 시절 보슬비가 가지 끝을 적시면
일천 점의 동심원이 수면에 엇갈린다.
저녁밥 두어 냉이 일부러 남겼다가
난간에 흘로 기대 새끼 고기 밥을 주네.

-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 8-4,
「보슬비에 물고기 먹이주기(細雨飼魚)」

4.

바람 잔 연못은 거울 간 듯 매끈한데
이름난 꽃 기이한 돌 물 가운데 많이 있네.
돌 틈에 병두국을 욕심스레 보자 하니
고기 뛰어 물결 일까 몹시도 겁난다네.

-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 8-6,
「못물에 비친 국화(菊照芳池)」

5.

눈 희끗한 응달 비탈 돌 기운 해맑은데
높은 가지 지는 잎서 새로운 소리 난다.
언덕 가득 여린 대는 오히려 남아있어
서루(書樓)의 세밀 정취 머물게 하는구나.

-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 8-7,
「언덕 전체에 푸른 대(一塢竹翠)」

6.

작은 시내 휘돌아 맷부리를 감아 암고
푸른 수염 붉은 비늘 만 그루가 곧추섰네.
거문고 피리 소리 들끓는 곳 이르니
하늘 바람 불어와 온 집이 서늘하다.

-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 8-8,
「온 골짜의 소나무 파도소리(萬壑松濤)」

7.

작은 뜻은 참으로 초당의 얼굴인데
중앙에 세 봉우리 석가산을 세웠구나.
온갖 꽃들 철을 따라 늘 섬돌을 둘러 있어
물속에 아롱다롱 자고 무늬 어른댄다.

- 「다산화사(茶山花史)」 20-2

8.

동백나무 촘촘해서 푸른 숲을 이루니
서갑犀甲에 모서리 진 학정鶴頂이 우거졌다.
봄바람을 위하여 꽃이 눈에 가득하니
작은 풀 그늘에서 멋대로 피고 지네.

- 「다산화사(茶山花史)」 20-6

9.

초당 앞에 나무 하나 어지러이 잎만 돋고
가지 끝에 붙어 있는 꽃망울도 하나 없네.
지난해 동산지기 잘못하여 속았는데
꽃 피어 살펴보니 다름 아닌 수구화라.

- 「다산화사(茶山花史)」 2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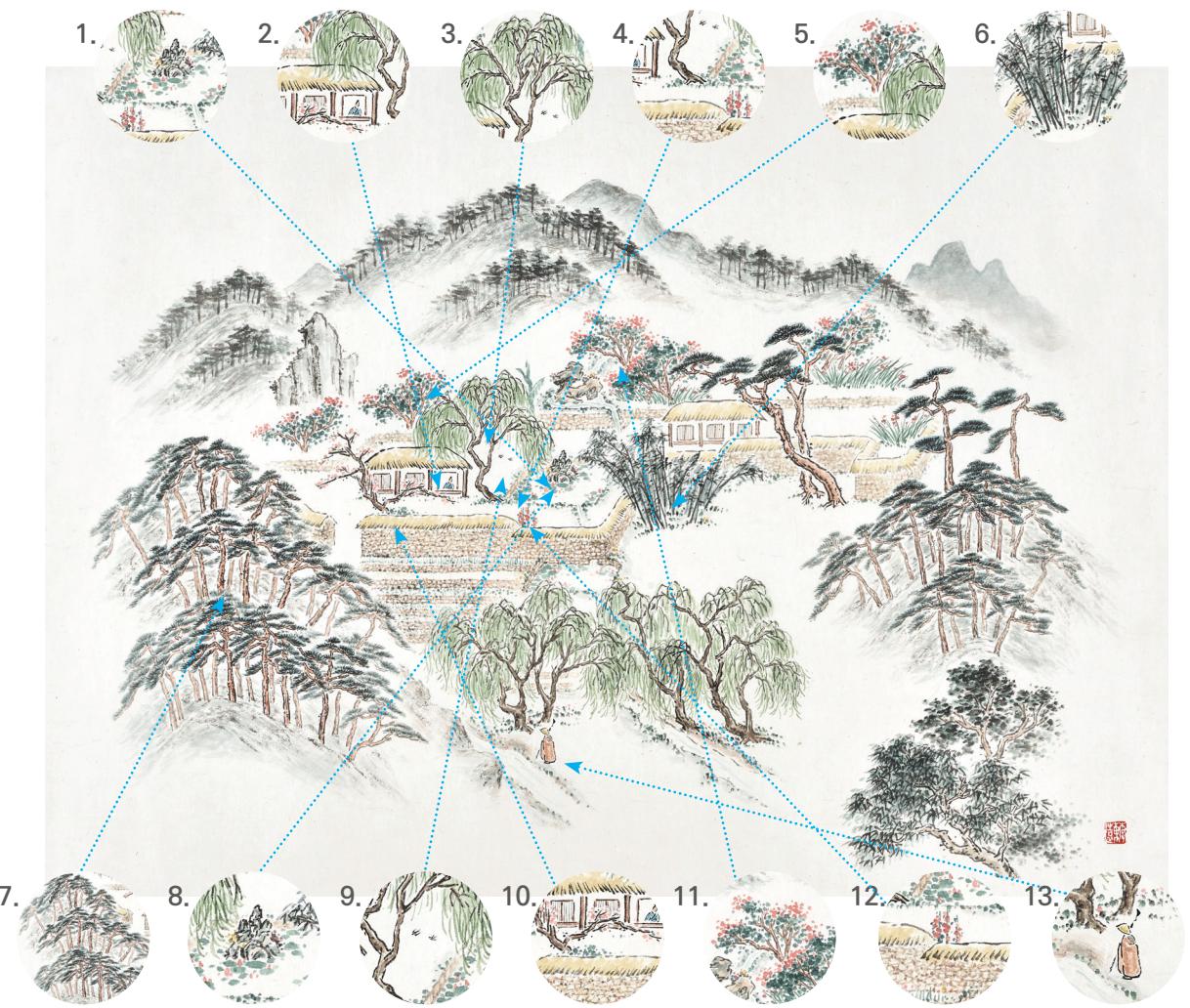
부양瘡癰은 『화경花經』에서 자미화(백일홍)라 하는데
한 가지 활짝 피면 한 가지는 시든다네.
꽃 없을 때 두고 보려 동산에 둔 것일 뿐
세상 드문 꽃이어서 심은 것은 아니라네.

- 「다산화사(茶山花史)」 20-12

11.

접시꽃 잎새마다 산들바람 불어오니
때가 되면 모름지기 일장홍一丈紅을 보겠구나.
이제부터 꽃다운 맘 해님만을 바라볼 뿐
벼들 그늘 속에는 뿌리조차 들이잖네.

- 「다산화사(茶山花史)」 20-14



12.

남쪽에서 온 제비 지혜가 있어
등지 엎음 반드시 뱀을 피하네.
어여쁜 모습이야 비록 없어도
지극한 정성이야 어이하겠나.
박대해도 오히려 사모하는 듯
걱정 깊어 지켜주길 바라는 듯해.
생성에서 사물 이치 깨닫게 되니
떠돌이로 집도 없음 부끄럽구나.

- 越鷺巢於堂上, 屢塗屢毀, 退丐屋梠. 憐而許之, 感作一詩.

13.

예쁜 뭇가 초가집이 다만 쓸쓸하기에
지난 해부터서는 대 가꾸고 솔 심었지.
티끌세상 잊고 사니 모두가 취객이요
산중에 들르는 이 참선하는 승려라네.
외람되어 가구佳句로 소식蘇軾과 맞겨루고
잔경殘經을 붙들고서 정현鄭玄을 논박하지.
한 그루 매화가 이렇듯이 해맑아
향 사르며 흰 구름가 단정하게 앉아본다.

- 「매화(梅花)이월십오일(二月十五日)」 3-3

백운동별서 白雲洞別墅

122.7×73.5cm

한지에 수묵담채

2015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546번지 안운마을에 위치한 전통 원림으로 이 담로李聃老(1627~?)가 조성하여 현재까지 12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백운동별서는 월출산 옥판봉 남쪽 기슭을 끼고 백운곡의 동쪽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별서는 살림집인 본제本第에서 떨어져 인접한 경승에 은거를 목적으로 조성한 제2의 주거를 일컫는데 이곳은 차폐림 구실을 하는 대나무숲, 동백나무와 비자나무 등 상록수림과 집 옆을 흐르는 계류에 의해 아래쪽 안운마을과 이중으로 차단되어 있다. 마당에 자리한 유상곡수流觴曲水와 상하 방지方池의 수로는 별서 밖의 계곡물을 자연스레 끌어들인 계류형溪流型으로 전통 호남 원림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경사면을 따라 지어진 축대를 3단으로 쌓아 화계를 조성해 모란과 각종 화훼와 나무를 심었다. 아래쪽 정자의 높이는 본채와 비슷하다.

1801년에 강진에 유배온 정약용(1762~1836)은 이후 18년간 이 고을에서 놀라운 학문적 성과를 거두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었다. 1812년 9월 12일 초의선사와 만나 월출산을 등반하고 이 담로의 후손인 이덕휘李德輝(1759~1828)의 별서를 방문하여 하룻밤을 묵었다. 이후 다산은 백운동 12경시 연작을 지었으며, 초의선사(1786~1866)는 〈백운동도白雲洞圖〉와 〈다산도茶山圖〉를 그려 《백운첩白雲帖》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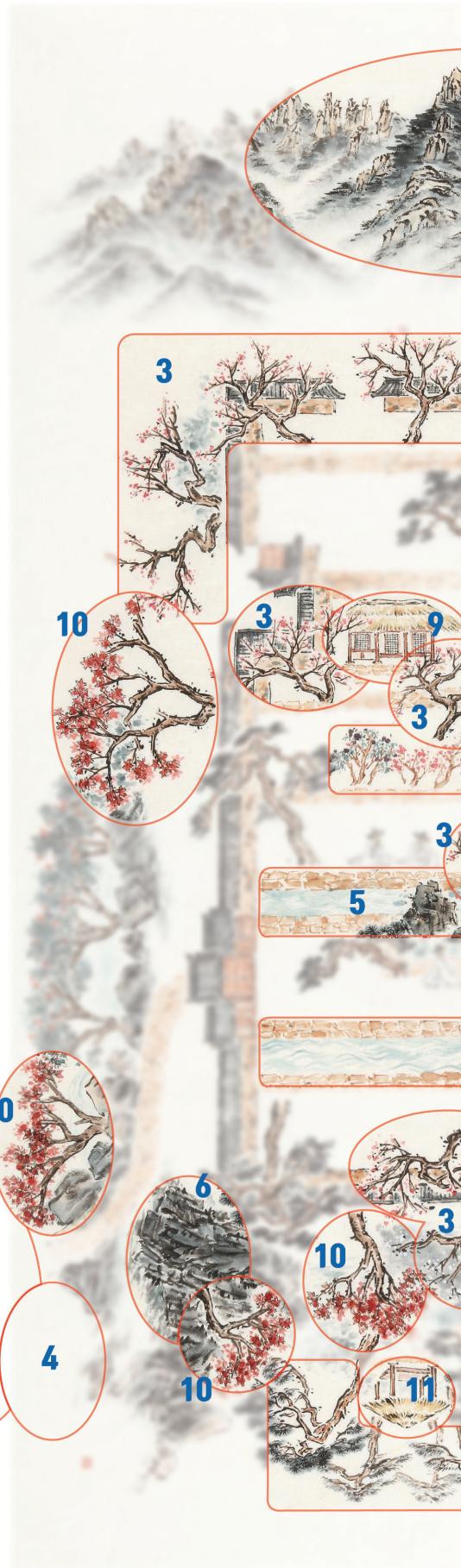
그림은 백운동별서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정약용의 방문과 그의 눈에 비쳐진 백운동 12경을 담았다.

소쇄원과 함께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 정원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 선비의 마음과 이상을 담아 만들어진 특성을 살려 마치 신선 세계처럼 그렸다. 그림은 공간의 위아래 개념이나 투시법, 계절감 등을 초월하여 동시에 12경을 표현하였다. 여러 각도에서 봐야하는 풍광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고지도나 궁궐도에 사용된 다중시점투시법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자연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때를 기준으로 사계절을 모두 담았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도학道學이 실현된 자연 공간 즉 유토피아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다.



제1경 : '옥판상기 玉版爽氣'.

다산은 그림 상단에 펼쳐진 옥판봉의 상쾌한 기운을
백운동의 으뜸으로 꼽았다.



제2경 : '유차성음 油茶成陰'.

화면 좌측 하단에 별서로 들어오는 좁은 길과 나란히
수백년 된 굵은 동백나무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
로 숲을 이루고 있다. 그 빽빽함이 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을 만드는데 이러한 동백나무 숲의 그늘을 말한
다. 산다山茶 또는 유차油茶는 동백나무의 별칭이다.

제3경 : '백매암향 白梅暗香'.

초의선사가 그린 「백운동도」에는 다산이 방문했
을 무렵 원래의 100그루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던지
매화나무가 한 그루만 있다. 집둘레를 따라 심은 담
장 안팎의 100그루 매화 언덕이 있었던 기록에 근거
하여 원래의 별서 모습으로 그렸다. 늦은 겨울, 100
그루의 흥청매가 피어날 때면 신선세계에 있는 듯 황
홀경을 느끼기에 충분할 듯하다.

제4경 : '풍리홍폭 楓裏紅瀑'.

그림 좌측 가장 아래에 별서로 들어오기 전에 건너
는 돌다리가 놓이고 바위와 다리 사이로 시내가 폭
포를 이루며 떨어진다. 바위 위의 단풍나무의 붉은
빛이 물방울의 포말을 홍옥紅玉처럼 물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림에는 시냇물의 흐름만 나무 뒤에 살짝
그렸다. 폭포는 전체의 폭이 커지지 않게 하려고 생
략하였다.

제5경 : '유상곡수 流觴曲水'.

별서 밖으로 흐르는 계곡물을 끌어들여 마당을 돌아
나가는 물굽이에 띄운 술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물
이 고이는 상하 방지方池에 석가산과 연꽃이 있었다
고 한다. 해가 질 무렵 은은한 암향이 퍼지고 술잔을
피워 시회를 하는 풍류객들이 나누던 정겨운 소리를
상상하며 유상곡수 주변에 인물들을 배치해 보았다.

제6경 : '창벽염주蒼壁染朱'.

그림 좌측 하단에 우뚝 솟은 바위 절벽의 붉은 글씨이다.



제7경 : '유강홍린蕤岡紅鱗'.

그림 중앙 하단에 언덕 위에 펼쳐진 소나무 숲인 정유강貞蕤岡의 용 비늘 같은 소나무 껍질을 가리킨다.

제8경 : '화계모란花階牡丹'.

그림 중앙의 꽃 계단에 심은 모란이다.

제9경 : '십흘선방十笏禪房'.

그림의 제이사분면에 자리한 취미선방翠微禪房을 가리킨다. 십흘은 아주 작다는 뜻인데 흘은 신하가 임금에게 조회할 때 공경의 뜻으로 들고 있던 길쭉한 작은 판이다. 이 판을 10개 이은 크기의 작은 방이라 는 뜻이다.

제10경 : '홍라보장紅羅步障'.

별서의 군데군데 심어져 있는 단풍나무가 깊은 가을이 되면 연이은 붉은 단풍잎이 햇빛을 가리며 마치 곱고 선명한 붉은 비단 장막처럼 보이게 된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눈이 부실 것 같은 상상을 하며 그림을 그렸다.

제11경 : '선대봉출仙臺峯出'.

그림 중앙 하단, 제7경 유강홍린이 자리한 곳에 정선대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월출산을 바라보면 시야에 가림이 없이 옥판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장관이 펼쳐진다. 정선대에 서있노라면 빽빽한 동백 숲에 둘러싸여 분지 같이 자리한 이곳을 살짝 부양해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독특한 기분이 들기도 하며 별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12경 : '운당천운簫簷穿雲'.

별서의 우측 담장을 따라 길게 자리한 왕대나무 숲을 가리켜 운당원이라 하였다. 운당원에 우뚝 솟은 대나무가 하늘로 솟아 구름까지 닿을 듯하다.

일속산방 —粟山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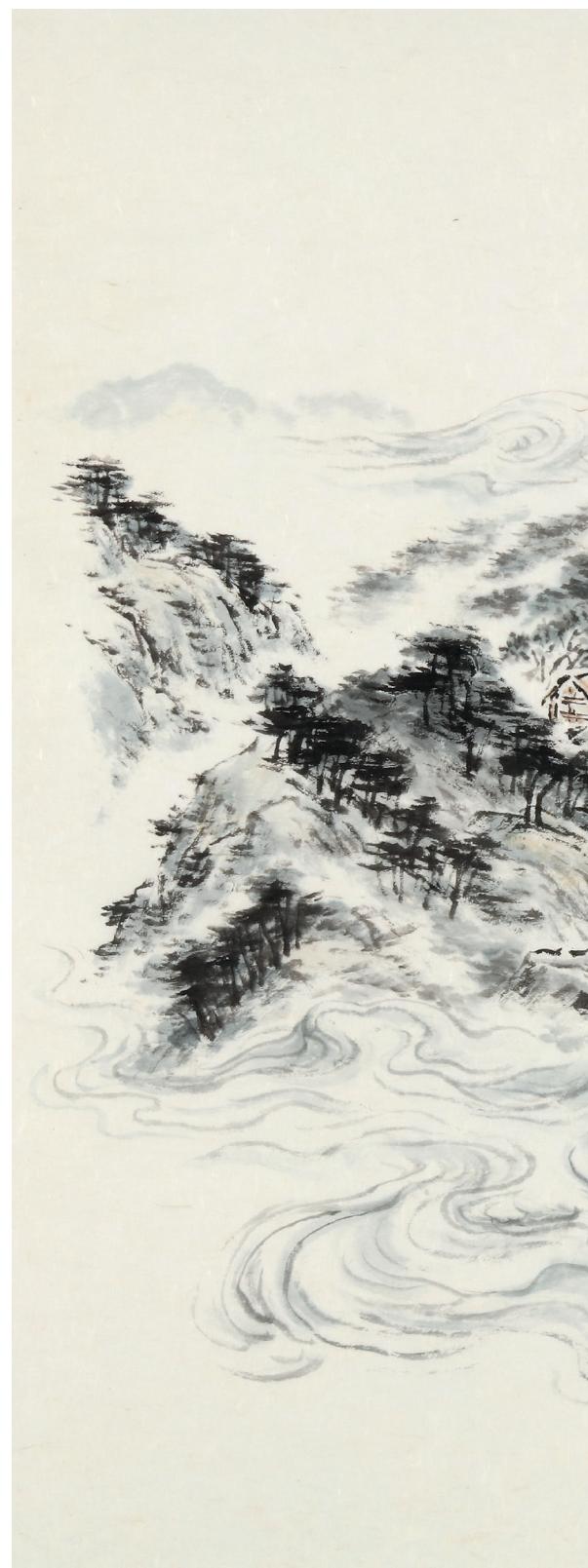
61.5×72.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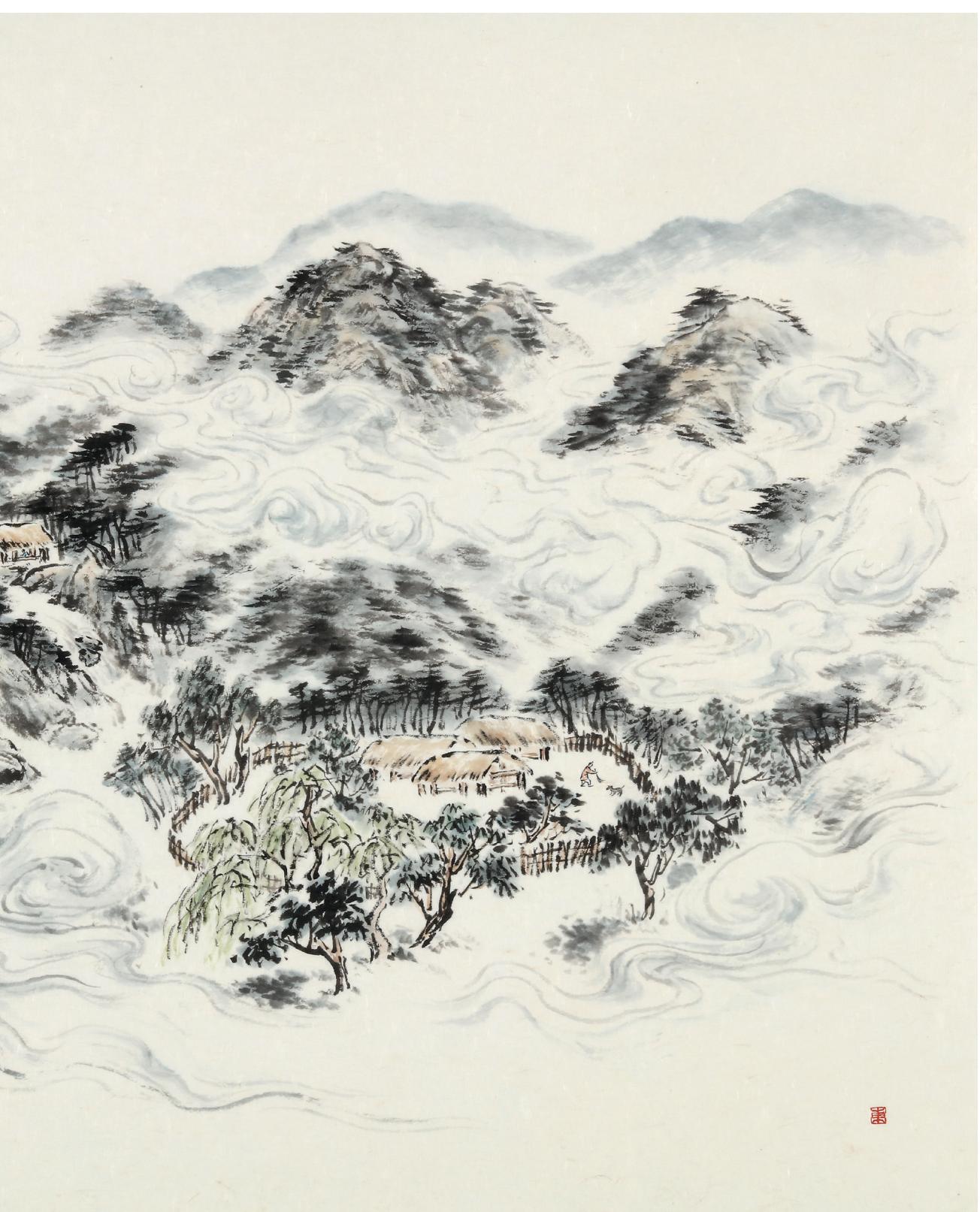
한지에 수묵담채

2015

치원 황상樞園 黃裳(1788~1870)은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의 제자이다. 평생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던 황상이 젊은 날 스승 정약용이 가르쳐준 산속 취미를 잊지 않고 살다가 노년이 되어 작은 집을 지어 현실화한 것이다. 처음 황상은 이 곳에 들어와 바위틈에 몇 칸 집을 짓고 가시덤불을 베고 막힌 길을 뚫어 물길을 흐르게 했다. 이렇게 끌어온 물로 꽃을 가꾸고 채소를 길렀다. 대숲도 일구고 손님이 찾아오면 약초를 캐고 아욱국을 끓여 대접했다. 이런 모든 삶이 스승이 써주신 글과 일치하는 삶이었다. 초의가 소치를 시켜 그린 「일속산방도」를 보면 집을 에워싼 산자락에 나무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세 채의 집이 있다. 그리고 집 왼쪽 위편 골짜기에 다시 한 채의 집이 바로 일속산방이다. 184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855년에 일속산방을 완공하였다. 일속산방은 좁쌀 한 틀 만한 작은 집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는 인생을 아득한 바다 위의 낱알 한 틀에 견준 것이다. 자신은 좁쌀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좁쌀 한 틀의 몸으로 좁쌀 한 틀의 산에 살며 공명과 부귀를 뜯구름같이 하찮게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의 일속이 보잘것없고 미소해도 그 속에 광대무변한 자족의 세계가 있음을 기렸다.

그림은 소치 허련의 「일속산방도」를 바탕으로 일속산방 주위에 일렁이는 운무를 가득하게 하여 초월한 그의 깨닮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듯 현실의 장소가 아닌 이상의 세계처럼 그려 보았다.





여유당 與猶堂

79×65cm

한지에 수묵담채

2021

그림의 시점은 다산이 고향 마을에 막 돌아왔을 어느 무렵이다. 비가 내리는 쓸쓸한 가을 날, 온통 누런 잎으로 덮여있는 고향의 풍경이 석양에 더욱 진하게 다가왔을 느낌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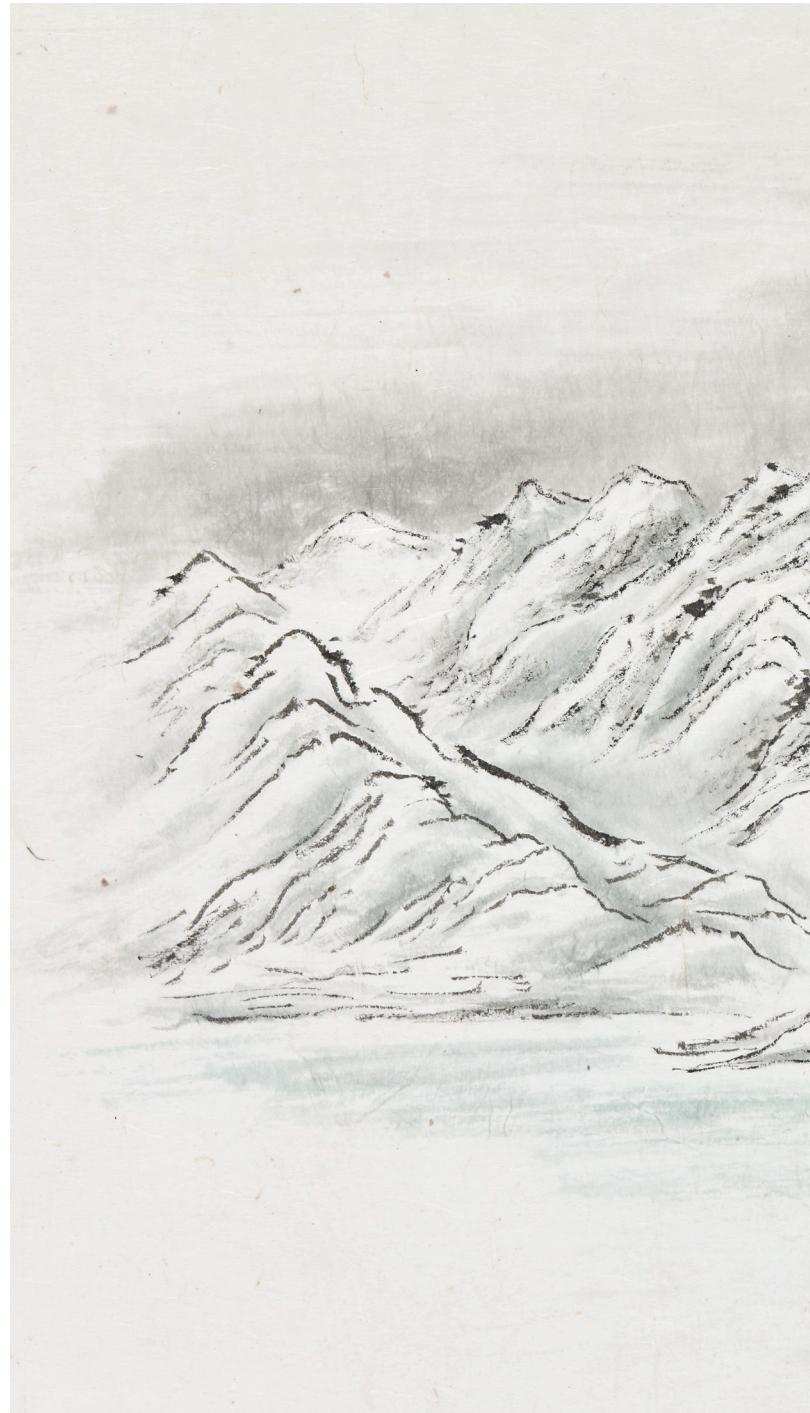
1818년 9월, 18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정약용은 고향에 돌아왔다. 같은 시기에 흑산도로 유배를 간 형은 끝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다산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과 중풍으로 말이 헛나오는 질병과 싸우면서도 제자들과 학문연구에 몰입하는 것으로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하진 않았을까? 그렇게 일구어낸 500권이 넘는 방대한 성과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이 고향 언덕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떠했을까? 쇠약해진 육신과 자신의 연구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쓸쓸하고 비 내리는 적막한 가을날의 고향은 인생무상 바로 그 자체를 보여주는 풍광이었을 것 같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여기저기 쓰라린 상흔들이 가득하였을 것이다. 얼굴도 못 보고 죽어간 자식과 며느리, 더 이상 무언가를 펼치기엔 노쇠한 자신과 고향 여기저기를 바라보면 떠오르는 죽은 형제와의 추억들,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던 이들의 부재 등이 그를 더욱 눈물겹게 만들지 않았을까? 일에 몰입한 강도만큼 회한의 크기도 거대했으리라 여겨진다.





홍현주는 정조의 부마로서 시에 뛰어났다고 평가받는데 정약용이 사는 마재를 자주 찾아온 인물이다. 1831년 10월 16일에 홍현주가 마현으로 찾아와 수종사 가기를 원했는데, 70세인 정약용은 노쇠하여 따라가지 않고 차남 정학유와 초의선사가 같이 갔다. 이날 밤 정약용과 홍현주가 오엽정에서 모이고 함께 숙박을 하였다. 이들의 수종사 유람은 「수종시유첩」에 홍현주가 그린 그림과 함께 지은 시가 남아 있다.

그림은 홍현주가 그린 「수종시유첩」의 그림이 보이는 현장을 담사하여 풍경을 그렸다. 또한 등장인물이 2인이 아닌 홍현주, 정학유, 초의선사 3인을 그려 수종사를 향해 가는 장면을 담았다. 홍현주의 그림이 즉흥으로 그려져 불안정한 요소들을 개선하였는데 특히 수종사가 있는 산자락만 그린 시야를 더 폭넓게 잡아 운길산 일대의 산세를 추가하여 안정감을 부여하고 여유당과의 연계성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수종시유 水鍾詩遊

30.7×45.5cm

한지에 수묵담채

2021

연암 박지원은 새로운 문물과 지식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와 경제를 꿈꾸던 북학파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박지원이라는 위인이 우리 역사에 존재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2년에 걸쳐 10장 이상의 초상화를 그렸다. 12번째 그림을 전시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차에 우연히 박지원의 후손을 뵙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그린 초상화와 상당 부분 일치함에 놀라워 할 말을 잊을 정도였다. 출품한 작품은 그 첫 번째 그림이다.

심의를 입고 복건을 쓴 유복차림의 작품으로 박지원의 손자 박주수 가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는 박지원 초상을 기본으로 인상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인체의 얼굴비례를 벗어난 눈, 코, 입의 각도를 최대한 맞춰 주었다. 소실점의 각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인상을 벗어나는 경우는 기존 인물상의 인상을 우선으로 하여 사실적 변형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또한 기존 초상화의 얼굴 표현에서 호분사용이 부자연스러워 전체적으로 하얗게 들떠있는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였는데 아들인 박종채의 과정록에 기록된 얼굴이 붉고 울화증이 있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상기된 혈색으로 배채하였다.

전체적으로 초상화 제작의 근거는 박종채의 과정록이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 박지원은 안색이 불그레하고 윤기가 났으며 눈자위는 쌍꺼풀이 있고 귀는 크고 희었다고 한다. 광대뼈는 귀밑까지 뻗쳤으며 긴 얼굴에 듬성듬성 구레나룻이 나고 아마에는 달을 바라 볼 때와 같은 주름이 있었다고 한다. 몸은 키가 크고 살겼으며 어깨가 곧추 솟고 등이 곧아 풍채가 좋았다고 하였는데 이를 증명하듯 담옹 김기순이 본 연암은 태양인의 체질을 갖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연암은 얼굴과 어깨를 포함한 상체가 발달한 체형으로 여겨진다.

연암 박지원 초상
燕巖 朴趾源 肖像
59.5×44cm
비단에 채색
2017



그림은 청나라 나빙이 그린 박제가 전신상을 바탕으로 하였다. 자신은 물소 이마에 칼날 눈썹을 지녔고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를 가졌으며, 고고한 이만을 가려서 더욱 가까이 지낸다고 소개한 박제가의 「소전」의 글을 반영하였다.

나빙의 그림에서 박제가의 얼굴과 몸의 비례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몸에 비해 상당히 큰 비율의 얼굴 크기를 느낄 수 있는데, 얼굴에 비해 어깨가 유난히 좁아 보이는 체형이라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추측건대 태음인의 체질을 갖고 있을 듯하다.

초상화의 전제적인 표현 기법과 형식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초상화 (2007)』를 기준으로 18세기 후반의 초상화 양식에 맞추고자 하였다.

박제가는 1779년 3월 정조에 의해 규장각 검서관으로 특채되어 이후 청나라 사신이 파견될 때 자신의 수행원으로 다녀왔다. 그 뒤 1785년 전설서별제와 1791년 정조의 특명으로 정3품 임시 군기시정, 1792년 군기시정 등을 거쳐 부여현감 1794년(정조2년) 2월 춘당대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 오위장, 1796년 양평현감, 영평현감 등을 역임했다. 정조 사후 1801년 그와 친분이 있던 윤행임이 노론벽파의 공격을 받고 몰락하면서 유배되었다. 초상화는 생애 중에 가장 높은 품계를 그려주는 것이므로 박제가의 생애에서 가장 높은 품계는 1791년 임시 군기시정으로 정삼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영조대의 『속대전續大典』을 기준했을 때 당하관은 백한흉배와 삽은대를 사용한다. 백한은 치雛의 일종으로 깃털이 주로 백색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백색으로만 묘사되진 않으나, 꼬리의 깃털 모양이 마치 봉황꼬리와 같이 파상형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꼬리는 다섯 가닥을 드리우고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최초의 백한흉배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17세기 초의 <임장 초상>이다. 그림은 <임장 초상>과 <유숙 초상>의 백한흉배와 삽은대를 참고하였다. 흉배의 채색 재료는 강렬한 색상과 중후한 질감이 느껴지는 광물성 석채의 진채로 하였고 꽃과 백한을 그릴 때는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바느질을 구사한 자수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모의 높이가 높아지는 특성을 적용하여 높은 오사모烏紗帽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교의 좌상으로, 좌안칠분면을 취하고 있다. 관복의 형식은 조선후기의 가장 전형적인 관복상인 <윤급 초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복식은 잠자리 날개 무늬가 어린 높은 사모를 쓰고 짙은 녹색 비단에 시원하고 큼직한 구름무늬와 상서로운 칠보무늬가 수놓인 운보문단의 단령을 입고 있는데 박제가의 활동 시기와 가장 유사한 시대라는 측면에서 기준을 잡았다. 단령의 트임 사이로 청색내공과 백색 철릭이 보이는 것과 양발이 팔자형으로 족좌대 위에 놓여있는 모습도 참고하였다. 화문석이 깔린 의답, 의자와 목리문은 1792년 이후에 이명기가 그린 <오재순 초상>의 의답(족좌대)과 <윤급 초상>의 화문석을 결합하였고 목리문과 형태는 <오재순 초상>을 반영하였다.

얼굴은 전면에서 적갈색 필선으로 윤곽을 선묘하고 얼굴 전체의 채색은 분홍색과 살색의 진하기를 조절해 가며 뒷면에서 여러 번 쌓아주었다. 광대뼈와 콧등, 이마와 턱의 돌출 부위는 비단의 뒷면에서 물감을 두텁게 쌓아 전면에서 뺐을 때 밀도감 있게 보이도록 하였다. 적갈색 담채로 얼굴을 자세하게 선염하여 명암을 표현했는데, 90% 이상을 배채로 처리하고 10% 정도의 마무리는 전면에서 가벼운 채색으로 마무리 하였다. 광대뼈부위에는 연지와 황토를 섞어 흥기를 주었다.

눈동자는 1796년 이명기가 얼굴을 그리고 김홍도가 몸체를 그린 <서직수 초상>의 표현기법을 반영하였다. 검은 동공 주위를 등황색으로 강조하고 푸르고 초록의 기운이 마치 안에서 바깥쪽으로 타오르듯 번지게 눈동자를 묘사하였다. 눈 안쪽과 끝에 붉은 기운을 삽입하여 생동감을 나타내는 방식도 적용하였다. 눈 밑에 둉글게 늘어진 주름을 비롯하여 콧망울 끝에서 양 입가로 내려오는 팔자형 주름선인 협과 법령 주변엔 붓질을 약간 몰리게 하여 요철감을 주었다. 입술은 외곽선 바깥쪽에 아주 밝은 살빛 선을 다시 한 번 그려 도드라지게 하였다. 육리문을 표현하게 되면 사실적일 수 있으나 자칫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는 이에게 줄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였다.



초정 박제가 초상
楚亭 朴齊家 肖像
135x74cm
비단에 채색
2020



깊은 겨울의 시련을 이겨내고 눈 속에서 막 피어난 매화처럼 18세기 후반을 살
다간 이 시기의 선각자들은 신분과 현실의 한계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
지 않고 맑은 삶의 자취를 남겼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가슴 속의 한
을 부단한 노력으로 승화시킨 숭고한 삶의 자세와 그들의 광대무변한 초월적
정신이 넘실거리며 밤하늘의 영롱한 별빛같이 빛남을 표현했다.



청영무천애 清影舞天涯

140×500cm

한지에 수묵담채

2021

이동원

李 東 遠 LEE DONGWON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12. 2 옛 등결에 매화꽃이 새롭구나 (공아트스페이스)
- 2015. 10 님의 숨결, 이 땅에 빛이 되어 흐르네 (가나아트스페이스)
- 2018. 12 탐매(探梅) (트렁크갤러리)
- 2020. 3 분토설향(紛吐雪香) (아트링크 갤러리)
- 2021. 3 여담재, 매화로 열다 - 개관기념특별전 (서울여성역사문화공간-여담재)

단체전

- 2012. 7 매화꽃이 있는 정원 展 (환기미술관)
- 2013. 7 김환기 탄생 100주년 'Hommage à Whanki I' (환기미술관)
- 2014. 5 김환기 탄생 100주년 'Hommage à Whanki II' (환기미술관)
- 2014. 12 음풍농월 (吟風弄月) 사군자, 풍류에 물들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2016. 1 치유의 끌 (KSD문화갤러리)
- 2018. 10 마니프 서울국제아트페어 (예술의전당)
- 2020. 11 송하보월 (松下步月)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2020. 10 여성신화 워크숍 공연 - 내 안의 바리데기를 만나다 (한양대학교미술대학)

출판저서

- 『탐매(探梅)』 Searching for Plum Blossoms, 2018, Hexagon
- 『매화희신보(梅花喜神譜)』, 2018, Hexagon
- 2004. 2 석사학위 논문 『묵매화 연구』

기타 활동

- 2013. 1 ~ 2020.12 한국미술연구센터 연구원
- 2021. 3 ~ 현재 (사)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웹사이트 leedongwon.kr

이메일 bach1227@daum.net



2021 실학박물관 기획전
실학 청연
實學 清緣

벗과 사제의
인연을 그리다



실학박물관